

장백산천지

제 153 호

2009 년 10 월 30 일

금요일

남아프리카에 널리 전파된 파룬따파



런공하고있는 브라질 파룬궁수련생들



파룬따파전수 14 년을 경축하고 있는 페루 파룬궁수련생들

파룬따파는 1992 년 5 월에 중국대륙에서 전수하기 시작하여 이미 114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1 억이 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고 파룬궁저서는 이미 39 종 언어로 세계각지에 발행되고 있으며 파룬궁은 해외에서 3 천여 항목의

표창을 받았다. 파룬따파는 남아프리카주 각국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페루,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협회가 잇따라 성립되었다. 스페인문자로 된 “전법륜”책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환영을 받으며 판매량이 제일 많은 도서중 하나이다.

북시드니 사과명절에 환영을 받은 파룬궁단체



지난 10 월 17 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파룬궁수련생들이 저명한 그란니, 스미스 사과명절축하활동에 참가하여 민중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다.



무대에서 런공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들



파룬궁학원요고대



파룬궁천국악단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에 나선 변호사들



지난 10 월 15 일, 호남성악양시루구법원에서 개정하여 파룬궁수련생 허근원(許跟元)、황우군(黃佑軍)을 심리했다. 북경변호사 김광홍(金光鴻)(옆사진)은 법정에서 《피고인 및 기타 파룬궁련공인은 파룬궁을 련마하면서 더욱 남을 사랑하고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위해성이 없을뿐

만아니라 사회에 복을 주고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그야말로 사회의 가장 안전한 요소이다.》라고 명철하게 밝혔다.

공소인 리위성(李衛星)이 《사교조직을 리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두명의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할때 북경변호사 장전리(張傳利)는 《파룬궁은 사교라는 것을 어느 법률문건과 어느 조례에 씌어져 있는가?》라고 반문하자 공소인은 그만 말문이 막혔고 법관과 국보인원들은 서로 멍히 쳐다볼 뿐이었다.

나중에 변호사와 가족 및 본인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선고할 것을 요구했고 당장에서 석방하라고 했다. 유력하게 사악을 진감시켰고 법정은 휴정할수 밖에 없었다.

악보를 받아 세가지 암에 걸리다



호남성 진계현 황계구진정부 종합치안관리 사무실 주임 양성산(楊聖山)은 1999 년 '7·20'이후 줄곧 중공을 따라 집을 수색하고 대법제자를 붙잡으며 가족한테서 돈을 사취해냈다. 2009 년 8 월초, 양성산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직장암, 간암, 폐암도 확진됐다. 이러한 일은 하늘이 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바로 세인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선악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박해받아 세상 뜬 파룬궁학원 곽회생

호남성침주가화현정부법제사무실 간부인 곽회생(郭會生)은 지난 8월6일 저녁에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2달동안 국안대대 교도원 호영휘(胡永輝) 등 악경 4명들에게 구타당하여 온 얼굴이 피투성이 되었다. 지난 12월 16일 그는 현 간수소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현인민병원에 호송되어 뇌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혼미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0월12일 5시경에 곽회생은 52세 일기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곽회생의 생전사진



곽회생의 사망전사진



폭로

연변박해소식

■ 룡정시파룬궁학원 김영단(金英丹)은 지난 4 월초에 룡정시룡문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었다. 악경들은 그에게 온종일 밥을 주지 않았고 온밤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룡정시간수소로 압송되어온 악경들의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급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악경들의 끊임없는 소란과 시달림속에서 지난 10 월 5 일에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 연길시파룬궁수련생 박광수(朴光秀)、리룡기(李隆基)、김명호(金明鎬)는 지난 9 월 15 일에 연길시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연길시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화룡시파룬궁학원 류준(劉俊)은 팔가자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화룡시아동저수지 세뇌반에 압송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